

장성군, 일주일 빠른 '추석 방역'...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돋보여

26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종합상황반 운영해 상황 신속 대처

장성군이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13일부터 26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갖는다.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과 복지시설, 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이 한층 강화되며, 백양사 휴게소 하행선과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가 운영돼 누구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 방역이 취약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인구 이동'이다. 외부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민의 외부 방문도 감염병의 지역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타 지역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방역의 '첫 단추'가 된다. 장성군은 을 추석에도 고향 방문

과 여행 등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지역 사회에 강조하고 있다. 부득이 고향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방문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도착 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은 5개반으로 종합상황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군은 연휴 시작 전인 13~17일 감염 취약시설 위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이어서 26일까지 읍

집, 요양시설, 전통시장, 외국인 고용 사업장, 공공체육시설, 관광지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 점검을 이행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다중이용 시설에는 1대1 전담공무원제를 적용해 집중 관리한다.

유두석 군수는 "철저한 방역 관리로 군민의 안위를 지키고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장성을 만들 고자 한다"면서 "군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광중 기자

담양군,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23~24일 전 주민 코로나19 전수검사

담양군이 추석 연휴를 맞아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추석 연휴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새로운 유행을 촉발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방역 강화와 더불어 빈틈없는 진료체계를 구축해 군민이 안심하는 연휴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휴기간 동안 총괄반을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 교통소통, 물가안정, 재난·재해, 보건진료, 주민불편 해소, 관광안내 등 10개의 대책반을 구성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추석 연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연휴기간 진료 공백이 없도록 선별진료소와 비상진료상황실, 격리시설 운영과 함께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특히 연휴가 끝난 23일과 24일 기존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에 총 12개소의 이동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전군민을 대상으로 코

로나19 전수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과 물가 안정대책에도 철저를 기한다. 특별수송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연휴 기간 교통상황과 안전운행을 관리하고 물가안정대책반에서는 성수품 수급과 가격안정,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통해 식품 안전을 책임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1일에는 한국대나무박물관, 한국가사문학관, 에코센터 등 실내 관광시설은 휴관을 하는 대신 죽녹원과 메타랜드, 소쇄원, 가마골생태공원 등 실외 관광시설은 무료로 개방한다.

이외에도 원활한 교통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개방치용 공유시스템인 공유누리(www.eshare.go.kr)를 통해 104개소 공유주차장과 66개소 공중화장실을 비롯해 전 기차 충전시설 등의 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종연 기자

영광, 전 직원 세무교육 실시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최근 영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평소 직원들이 보 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군민들에게 뒤따르는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해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시의 적절하게 군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함이다.

영광군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승환 세무사가 강사로 초빙돼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주요 내용만을 간추려 직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참석인원 제한으로 군청 전 직원 대면 교육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신청을 받아 90명(접종 완료자 50명 포함)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미참석 직원들은 청내 TV를 시청하도록 해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전 직원 세무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군민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세금에 대한 문의사항을 안내해 군민들이 세금과 관련해 가산세 등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화순8경, 관광 콘텐츠를 집중 홍보 큰 호응을 얻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큰 호응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화순8경, 관광 콘텐츠를 집중 홍보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는 전국 97개 지자체, 14개 해외 14개국, 181개 기관이 참여해 316개 부스가 운영됐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관광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주

제로 아시아 스마트관광 산업대전, KITS Travel Mart 등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화순군은 화순8경을 비롯한 화순 관광지과 주요 명산, 맛집 등을 홍보하고 화순군 관광 홍보영상 상영, 국화향연과 설렘화순 버스투어 홍보 활동을 펼쳤다.

'화순8경 맛집 기행' 홍보 책자, '화순8경과 함께하는 걷고 싶은 길'

리플렛 등 홍보물도 배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 국내 관광 트렌드에 맞춰 '안심 여행지 화순'을 부각해 홍보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화순 관광 OX 퀴즈'와 '추억의 뽕기 이벤트'를 통해 화순 관광 콘텐츠를 알리고 홍보 물품을 배부해 박람회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주목받았다. /남호경 기자

나주시, 로컬푸드 선물특판전 진행 소비자 고객 대상 할인, 사은 이벤트 눈길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오는 20일까지 나주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과 금남점에서 '추석맞이 선물세트 특판전'과 고객 사은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판전에서는 지역 대표 특산품인 나주배와 샤인머스켓·멜론 등 과일류와 더덕·참송이버섯 등 산지 농산물, 도라지배즙·배발사믹식초·한과세트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40여종의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세트를 만나볼 수 있다.

행사 기간 수산물·공산품 등 일부 가공 품목을 제외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전 고객에게는 구매액의 20%(최대 1만원)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16일부터 20일까지는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배즙·사과즙 사은품을 증정하고 농가·업체별 7~20%의 개별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추석 연휴 텃밭에서 직접 작물을 기르거나 수확하는 어린이 사진을 나주로컬푸드 밴드(band)에 게시하면 회원 1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또 아이스팩 5개를 모아 빛가람점 정육코너를 방문할 시 마스크(KF94) 3매로 교환해준다.

직매장 방문이 어려운 소비자는 나주시 공식 쇼핑몰 '오색마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다. 특판전 관련 문의는 나주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333-9081), 금남점(333-9071)으로 하면 된다. /서성택 기자

